

2023.10.24(화) 증권사리포트

만든 날짜: 2023-10-24 오전 8:32

수정한 날짜: 2023-10-24 오전 8:38

2023.10.24(화) 증권사리포트

대한항공

영업실적대비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된 현재 주가

[\[출처\] 하나증권 박성봉 애널리스트](#)

3분기 장거리와 단거리 노선 모두 수요 증가세 지속 전망

2023년 3분기 대한항공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2조원(YoY +7.8%, QoQ +8.7%)과 5,185억원(YoY -35.3%, QoQ +8.7%)으로 영업이익 시장컨센서스인 5,564억원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주 및 구주 노선 탑승율이 80%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장거리 노선 수요 호조가 지속되었고 일본과 중국 노선 수요도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1) 대한항공의 국제선 수송(RPK)은 2019년 3분기의 83.8% 수준까지 회복했고 동시에 2) 1분기대비 국제선 공급(ASK)을 8.0%나 증가시켰는데도 2분기대비 더욱 높아진 84.2%의 탑승률이 예상된다. 3) 화물의 경우 전분기대비 수송량(FTK)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운임(Yield, Cent 기준)이 큰 폭으로 (-8.5%) 하락하면서 화물 매출액이 703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분기에도 국제선 수요 호조 지속, but 유류비 상승은 부담

9월 인천공항의 여객 수송 실적은 486만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9월의 89% 수준까지 회복했는데 특히 일본 노선의 경우 2019년 9월의 168%를 기록하며 역대 9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고 중국 노선 또한 코로나19 이전대비 절반 수준까지 회복했다. 3분기 성수기 이후 대한항공의 장거리 노선 수요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단거리 노선은 4분기에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의 경우 4분기 성수기 돌입으로 수요 증가와 운임 상승이 동시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제유가(WTI)가 9월 들어 반등한 이후 현재까지도 높은 수준이 유지되면서 4분기 대한항공의 유류비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미국 EIA(에너지정보청)가 내년 유가 전망치를 상향하는 등, 국제유가 강세 전망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4분기 대한항공의 영업이익은 4,351억원(YoY -15.8%, QoQ -16.1%)을 기록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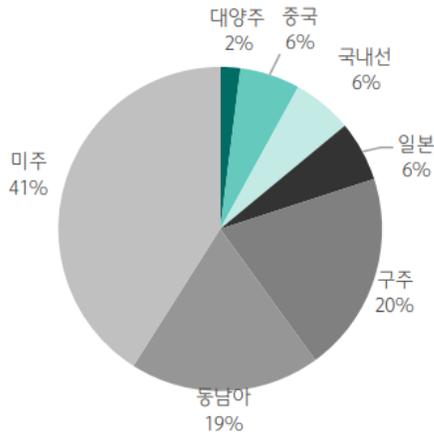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30,000원 유지

대한항공에 대해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30,000원을 유지한다. 지난해 사상최고치 영업실적을 기록한 이후 올해 하반기 들어 실적 Peak-out 우려가 확대되었고 원/달러 환율 및 유가 상승 등의 대외 영업환경 악화로 대한항공의 주가는 하락세를 지속했다. 그 결과 현재주가는 PBR 0.7배로 밴드 최하단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제한적이다. 추후 대외환경 변화를 감안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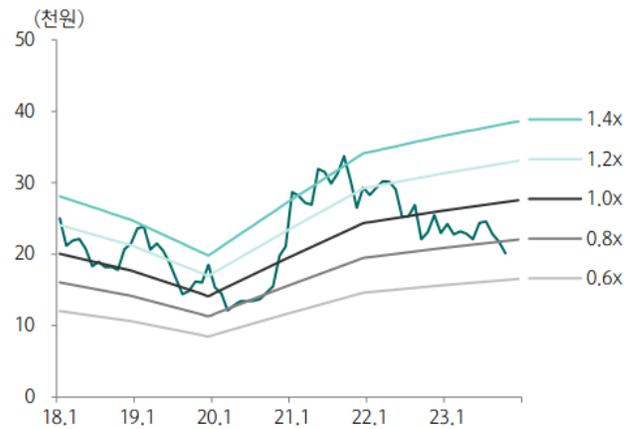
투자지표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9,016.8	14,096.1	16,016.6	16,771.7
영업이익	1,418.0	2,830.6	1,916.3	1,545.6
세전이익	843.1	2,562.1	1,316.5	1,126.2
순이익	577.7	1,728.4	934.7	842.7
EPS	1,905	4,798	2,531	2,282
증감률	흑전	151.86	(47.25)	(9.84)
PER	15.41	4.78	7.76	8.60
PBR	1.52	0.94	0.75	0.71
EV/EBITDA	5.98	3.10	3.47	3.96
ROE	11.60	21.95	10.04	8.50
BPS	19,356	24,353	26,063	27,595
DPS	0	750	750	750

도표 2. 대한항공 여객 노선별 매출비중



주: 2023년 2분기 기준
자료: 대한항공, 하나증권

도표 3. 대한항공 PBR밴드



주: IFRS 연결 기준
자료: 하나증권



현대건설

잘 나온 실적, 어두워지는 전망

[\[출처\] 하나증권 김승준 애널리스트](#)

3Q23 잠정실적: 컨센서스 상회

현대건설 3Q23 실적으로 매출액 7.6조원(+40.3%yoy), 영업이익 2,454억원(+59.7%yoy)을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매출액이 상회한 배경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공사 매출액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으며, 이익이 상회한 배경으로 연결자회사 송도랜드마크의 실적이 기대보다 좋았던 것이 있었다(2분기와 똑같다). 현대건설 별도로 GPM은 하락하고 판관비가 감소한 이유는 미르파 플랜트에 대한 합의에 따라 과거 총당금을 잡았던 금액 1,736억원을 판관비에서 원가로 계정대체했기 때문이다. 3분기에 반영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상반기 분양으로 현대건설 별도는 2,200세대, 현대엔지니어링은 5,076세대로 부진했다. 3분기 주주는 4.9조원을 기록했다. 자푸라2(약 20억달러)는 4분기 주수에 반영될 예정이다.

추정치의 변경: 송도랜드마크시티 전반적 실적 상향

현대건설 별도부문과 현대엔지니어링의 올해 4분기와 내년 매출액은 상향하나, 이익률은 소폭 하향했다. 주택과 해외에서의 마진 개선은 어려우며, 해외에서의 원가율 상승 우려를 일부 반영했다. 100% 연결자회사인 송도랜드마크시티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했다. 송도랜드마크시티는 총 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2차는 종료됐으며 현재 3차~4차를 진행 중이다. 작년 4차를 착공한 효과가 올해 2분기부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됐다. 그래서 과거 영업이익의 평균 300억원 수준이 700억수준으로 올라왔다. 이에 따라 4분기 및 내년 추정치를 상향했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55,000원 유지

현대건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는 55,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23년 EPS 추정치에 Target P/E 10.0배를 적용했다. 실적 추정치는 상향했으나 24년 사업 전망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올해 분양 가이드스를 1만 세대로 하향했으며 내년 분양 가이드스를 2만 세대로 제시했다. 현재 금리 상황 등 매크로 환경을 고려했을 때, 분양이 곧장 반등할 거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해외에서도 네옴시티 수주 소식을 듣기 어려워지고 있어, 해외 수주에 따른 모멘텀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18,065.5	21,239.1	28,487.0	28,653.6
영업이익	753.5	574.9	853.1	910.6
세전이익	854.1	753.8	957.2	919.1
순이익	407.5	408.9	613.3	612.5
EPS	3,651	3,637	5,456	5,449
증감율	232.82	(0.38)	50.01	(0.13)
PER	12.17	9.60	6.65	6.66
PBR	0.69	0.51	0.49	0.46
EV/EBITDA	3.73	3.54	2.82	1.93
ROE	5.89	5.49	7.65	7.11
BPS	64,200	68,380	74,231	79,080
DPS	600	600	600	600

도표 3. PER Band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4. PBR Band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코스메카코리아

전 법인 이익 개선 전망

[\[출처\] 키움증권 조소정 애널리스트](#)

3Q: 국내/중국/미국, 전 법인 실적 개선 기대

코스메카코리아의 3분기 연결 매출액은 1,183억원 (+14% YoY), 영업이익은 116억원 (+296% YoY, OPM 9.7%),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전망이다. 국내외 법인의 이익 개선 덕분이다.

국내: 국내 법인 매출은 645억원 (+13% YoY)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내 신규 고객사의 클렌징 제품 수주와 기존 고객사의 수출 물량이 늘어난 덕분이다. 이에 저마진 제품 비중이 축소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다.

중국: 중국 법인 매출은 140억원 (+27% YoY)을 기록할 전망이다. 시장 상황과는 별개로, 기존 주요 고객사의 재고 소진 덕분이다. 이에 고정비 부담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분기부터 흑자 전환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미국 법인 매출은 528억원 (+23% YoY)을 기록할 전망이다. 아마존, 얼타향 인디브랜드 고객사의 수주가 계속 늘고 있다.

수익성 개선, 이제 시작에 불과

코스메카코리아의 23년 연결 매출액은 4,682억원 (+17% YoY), 연결 영업이익은 437억원 (+321% YoY, OPM 9.3%)을 기록할 전망이다. 모든 국내외 법인의 매출 성장세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익도 함께 개선될 전망이다. 이러한 흐름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24년 국내: 국내 법인은 중소형 브랜드사의 해외 수출 물량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K뷰티 트렌드가 매스-매스티지 브랜드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사 고객사들의 발주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른 믹스 개선과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된다.

24년 미국: 美 인디브랜드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SUN 제품 매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고마진 제품 비중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24년 중국: 이미 체질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장 수요가 개선되어 수주물량만 늘어한다면, 낮은 기저와 영업레버리지 효과로 이익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지표

(십억원, IFRS 연결)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	347.0	339.1	396.5	399.4
영업이익	8.3	9.9	20.1	10.4
EBITDA	25.6	26.7	36.5	27.1
세전이익	6.3	4.3	17.5	6.4
순이익	4.0	3.4	17.0	6.0
자배주주지분순이익	4.9	2.6	8.9	2.7
EPS(원)	456	245	834	249
증감률(% YoY)	-45.8	-46.1	239.6	-70.2
PER(배)	24.9	49.7	15.5	41.2
PBR(배)	0.95	1.00	0.97	0.75
EV/EBITDA(배)	10.2	9.9	7.9	9.7
영업이익률(%)	2.4	2.9	5.1	2.6
ROE(%)	3.9	2.0	6.5	1.8
순차입금비율(%)	55.5	52.8	49.5	45.4



원익피앤이

수주잔고 7000억원 이상, 신규수주/실적 모두 레벨업

[\[출처\] 하나증권 김성호 애널리스트](#)

2차전지 조립/활성화 공정 장비 전문업체, 제품 라인업 확대 중

원익피앤이는 2차전지 조립, 활성화 공정장비 전문 업체이다. 활성화 장비를 기반으로 외형확대를 지속해왔으며, 2021년 2차전지 조립장비 전문 업체인 엔에스 합병을 기점으로 활성화 공정 내 디게싱/폴딩 장비와 조립공정 내 패키징 장비로 라인업 확대를 이루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은 배터리의 전기적 특성을 부여하고 불량을 판별해주는 '포메이션' 장비와 충/방전을 통해 배터리 성능을 검사하는 '사이클러' 장비이다. 특히 사이클러 장비의 경우, 국내 셀메이커 3사를 전부 고객사로 확보하였으며 국내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지닌다. 타 배터리 검사장비와 달리 사이클러 장비는 배터리의 잔존가치까지 판정이 가능하기에 전방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객 맞춤형 주문방식으로 수익성이 월등히 높다. 수주 장비별 비중은 1H23 기준 포메이션 48.3%, 사이클러 25.2%, 디게싱/폴딩 및 기타 26.5%로 전방 수요 확대에 따라 고마진 사이클러 장비 매출 비중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신규 고객사 확보로 늘어나는 신규수주와 수주잔고

원익피앤이는 엔에스, 삼지전자, 테크랜드 인수를 통해 조립/활성화 공정 내 폭넓은 장비 포트폴리오를 확보하였기에 국내외 고객사 향 지속적인 수주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내 셀메이커 3사 외에 유럽 노스볼트 향 활성화공정 장비 수주 역력이 있으며, 최근에는 Envision AESC 유럽 공장 향 패키징 장비, 프랑스 셀메이커 Verkor 향 활성화 장비 수주에 성공하며 유럽 고객사 향 수주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1H23 기준 신규 수주액이 3,000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 수주가 약 60%로 파악되어 향후에도 신규 고객사 확보에 따라 지속적인 신규 수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고객사의 증설 추이를 고려해볼 때 2023년 신규수주액은 5,000억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주잔고도 급격하게 증가 중으로 향후 실적 성장도 가능할 전망이다. 22년 4,333억원 à 1Q23 5,041억원 à 1H23 6,580억원으로 수주잔고가 급증했으며 최근 수주 내역을 고려할 때 현재는 시가총액의 2배가 넘는 7,000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우치형 배터리 장비 중심에서 최근에는 각형 조립장비와 조립공정 노칭/스태킹 장비로 라인업 확대 추진 중임에 따라 턴키 수주 및 매출성장률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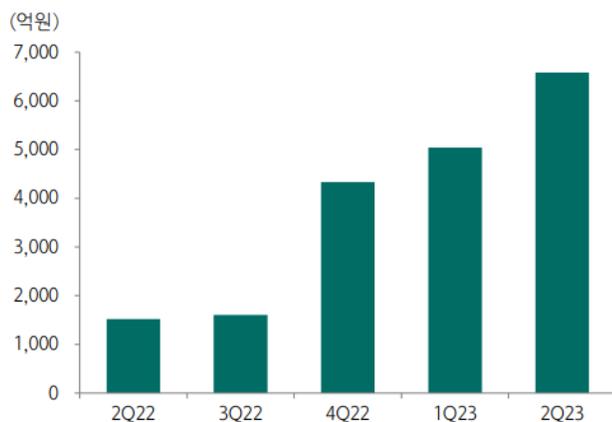
2024년 매출액 4,087억원, 영업이익 311억원 전망

2023년 연결 매출액 3,151억원(YoY +9.1%), 영업이익 174억원(YoY +340.7%)과 2024년 연결 매출액 4,087억원(YoY +29.7%), 영업이익 311억원(YoY +78.7%)로 예상한다. 고마진 사이클러 장비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배터리 셀 전수검사 수요 확대가 충/방전 장비 수요로 이어짐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유력하다. 또한 제품 검수 기준 회계처리에 따라 분기 실적 편차가 컸으나, FOB 방식으로 기준 변경을 추진 중이기에 개선이 기대된다. 한편 자회사 피앤이시스템즈를 통해 일본 시장 중심으로 진행 중인 EV 충전기 사업은 내년 하반기 북미 시장 본격진출이 예상된다. 사업 진행에 따라 2024년도 실적 성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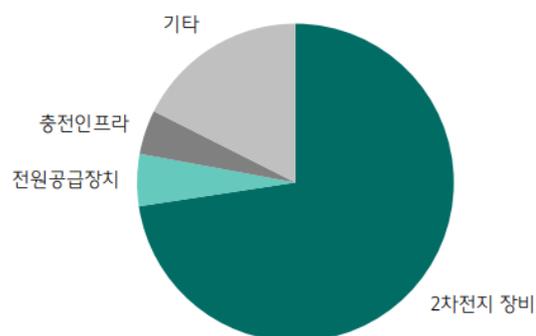
투자지표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	65	67	176	289
영업이익	6	7	15	4
세전이익	6	5	17	(0)
순이익	4	4	20	3
EPS	473	410	1,852	173
증감률	33.6	(13.3)	351.7	(90.7)
PER	10.4	25.4	5.2	42.2
PBR	1.4	2.6	0.8	2.1
EV/EBITDA	8.2	14.7	10.2	32.7
ROE	13.4	9.3	15.9	2.3
BPS	3,538	4,072	11,508	3,555
DPS	80	0	0	0

도표 1. 원익피앤이 분기별 수주잔고 추이



자료: 원익피앤이, 하나증권

도표 2. 원익피앤이 1H23 사업별 매출 비중



자료: 원익피앤이, 하나증권



제이브이엠
로봇 약사 출격

[\[출처\] IBK투자증권 이건재 애널리스트](#)

예상 보다 빠른 MENITH 투입

제이브이엠은 2022년 로봇팔 적용으로 100% 자동화에 성공한 개발을 완료함. 개발 완료된 MENITH는 2023년 1년간 유럽에서의 필드 테스트 후 그 결과값을 바탕으로 수출 시장에 진출하려는 계획을 보유하고 있었음.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필드 테스트를 진행하던 MENITH가 네덜란드 제약 유통시장의 주요 업체인 Brocacef(브로카세프)에 MENITH 초도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힘

브로카세프는 MENITH의 필드 테스트를 진행하던 기업으로 장비의 성능과 신뢰도가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판단해 초기 계획보다 빨리 장비 적용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됨. MENITH는 최첨단 대형 장비로 처방전 처리 능력이 급격히 향상되고 추가 약사 고용은 제한적이어서 약국 비즈니스에 경쟁력을 확보해 주는 첨단 장비로 분류되고 있음

3분기 예상 실적 조정

동사에 대한 3분기 예상 실적을 매출액 393억원(+15%, YoY), 영업이익 72억원(+27% YoY)으로 수정함. 이는 기존의 예상 실적 대비 매출액 -6%, 영업이익 -14% 가량 조정된 것으로 2분기부터 이연된 매출 영향이 3분기 까지 일부 지속 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이연된 매출은 대부분 4분기에 크게 반영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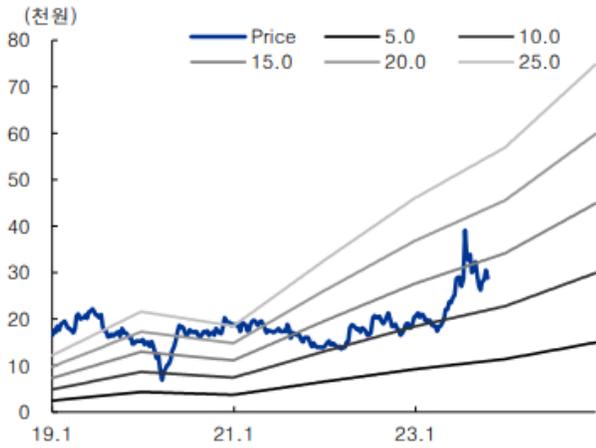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5,000원 유지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5,000원을 유지함. 동사 실적 수정이 일부 있지만 차기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는 MENITH의 조기 계약 소식과 내년부터 본격화될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와 같은 이벤트를 고려했을 때 목표주가 유지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

(단위: 억원, 배)	2021	2022	2023F	2024F	2025F
매출액	1,158	1,420	1,616	1,874	2,143
영업이익	125	220	301	367	426
세전이익	94	213	326	399	466
지배주주순이익	90	158	222	275	362
EPS(원)	740	1,303	1,839	2,277	2,992
증가율(%)	-14.3	76.0	41.1	23.8	31.4
영업이익률(%)	10.8	15.5	18.6	19.6	19.9
순이익률(%)	7.8	11.1	13.7	14.7	16.9
ROE(%)	6.4	10.4	13.3	14.6	16.7
PER	18.8	15.7	15.7	12.7	9.6
PBR	1.2	1.6	2.0	1.7	1.5
EV/EBITDA	7.7	7.8	8.1	6.4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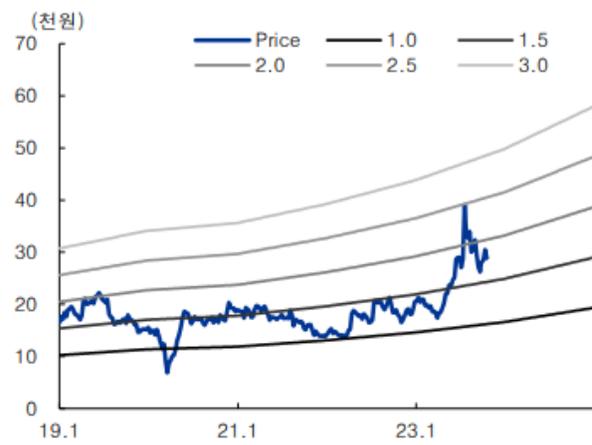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Forward PER Band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그림 2. Forward PBR Band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가동률 추가 개선 필요

[\[출처\] NH투자증권 주민우 애널리스트](#)

지금보다 더 안좋을 순 없다

투자의견 Buy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51,000원으로 19% 하향. 수요부진과 전력비 부담 탓에 국내 동박 공장의 적자가 예상 대비 장기화될 것을 반영해 손익을 조정했고, 2025년 준공 예정인 스페인 공장의 가동시점을 2026년으로 변경한 영향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로 재고조정이 장기화되고 있음. 말레이시아 3,4공장 추가로 2차전지용 동박 생산능력은 3.5만톤에서 5.5만톤으로 늘어났으나, 2023년 동박 판매량은 3.5만톤(+20% y-y)에 그칠 전망. 낮은 가동률은 본격적인 수익회복 시점을 지연시키고 있음. 2024년 판매량은 신규 고객 물량 확대를 반영해 5.3만톤(+50% y-y)을 목표로 하고 있고, 생산능력은 7.5만톤으로 예상돼 가동률과 재고 측면에서 2023년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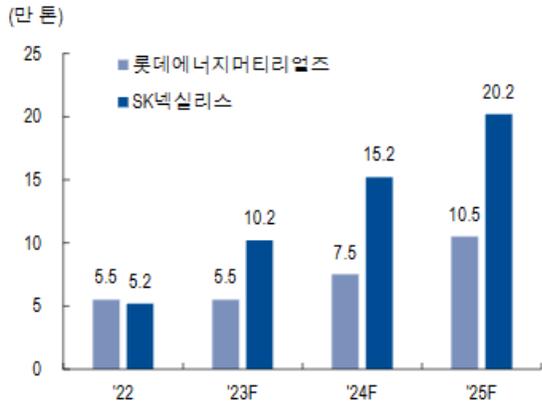
3Q23 preview: 최악은 지났으나 정상화까지는 시간 필요

3Q23 매출액은 2,218억원(+31% y-y, +12% q-q), 영업이익은 60억원(-74% y-y, 영업이익률 2.7%)으로 컨센서스 대비 각각 +6%, -44% 예상. 계절적 성수기 효과로 동박 출하량은 +10% q-q 개선됐으나, 가동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손익 개선 효과는 미미. 말레이시아 공장은 낮은 인건비와 전력비 덕에 2Q23에 이어 3Q23에도 8~9%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임. 반면국내 공장은 적자가 이어지고 있음

	2022	2023E	2024F	2025F
매출액	729	821	1,057	1,291
증감률	5.9	12.5	28.8	22.1
영업이익	85	22	85	151
증감률	21.2	-73.8	281.2	78.9
영업이익률	11.6	2.7	8.0	11.7
(지배지분)순이익	44	-22	51	86
EPS	950	-483	1,114	1,856
증감률	-30.2	적전	흑전	66.6
PER	54.6	N/A	35.5	21.3
PBR	1.6	1.3	1.2	1.2
EV/EBITDA	21.2	25.1	15.3	11.2
ROE	3.6	-1.5	3.5	5.6
부채비율	22.1	25.8	41.9	46.5
순차입금	-11	-207	171	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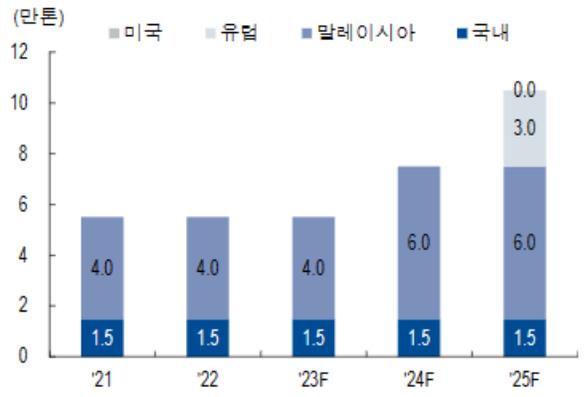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원, 배

그림1.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동박 캐파 계획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그림2.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지역별 동박 캐파 계획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LS ELECTRIC

반도체 증설 투자 및 영업일수 감소의 영향

[\[출처\] NH투자증권 이민재 애널리스트](#)

중장기 이익 체력은 유지될 전망

LS ELECTRIC에 대한 투자 의견은 Buy를 유지하지만, 목표주가는 120,000원(기존 140,000원)으로 하향 조정. 투자 의견을 유지하는 이유는 중장기적으로 정상화되는 반도체 투자와 계속되는 공급 우위의 전력인프라 부문 이익 규모가 유지되기 때문. 목표주가 하향은 1) 하반기 반도체 투자 감소로 인한 2023년 자동화 부문의 영업이익 감소(-32% y-y), 2) 중국법인의 매출 축소(-7% y-y) 등의 반영에 기인

전력인프라 부문 이익은 수주잔고가 1.8조원(2분기 기준)을 상회하는 바 당분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전망. 산업 구조상 수요가 확대되어도 적극적인 설비투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공급 우위의 시장 상황 지속될 것으로 추정. 참고로 수요처와 2026년, 2027년 물량을 논의하고 있을 정도로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 설비 가동률도 8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 중. 따라서 전반적인 경기 부진으로 인한 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간 영업이익 3,000억원 대는 유지할 전망

쉬어 가는 3분기

연결기준 3분기 실적은 매출액 1.1조원(+31% y-y), 영업이익 757억원(+25% y-y)으로 영업이익 컨센서스(897억원)를 하회할 것으로 추정. 반도체 투자와 영업일수 감소, 중국법인 매출 축소 등으로 인해 2분기 대비 부진할 것. 2023년 실적 기준 PER 11배 수준

	2022	2023E	2024F	2025F
매출액	3,377	4,366	4,155	3,937
증감률	26.6	29.3	-4.8	-5.2
영업이익	187.5	327.2	328.8	321.0
증감률	20.9	74.5	0.5	-2.4
영업이익률	5.6	7.5	7.9	8.2
(지배지분)순이익	90.3	225.3	227.9	226.1
EPS	3,010	7,511	7,597	7,538
증감률	6.5	149.5	1.1	-0.8
PER	18.7	10.7	10.6	10.7
PBR	1.1	1.4	1.2	1.1
EV/EBITDA	6.8	6.3	5.7	5.3
ROE	6.0	13.6	12.4	11.2
부채비율	114.5	121.4	107.6	96.4
순차입금	281.2	325.5	87.5	-147.6

단위: 십억원, %, 원, 배



주 전 010120 LS ELECTRIC 일 주 월 년 분 초 tick 1 3 5 10 20 30 60 120 120/600 2023/10/23

73,900 ▼ 3,800 -4.89% 375,126 174.97% 1.25% 27,933백만 호가 74,000 73,900 시 76,700 고 77,300 저 72,700 매수 매도 평

LS ELECTRIC 증가 단순 3 120 증가 단순 45 8 224 15 10 증가 단순 100 150억 강세패턴 LC:22.76 HC:-46.25



거래량 375,126주(174.97%) 2023/04 06 07 08 09 10 10/23